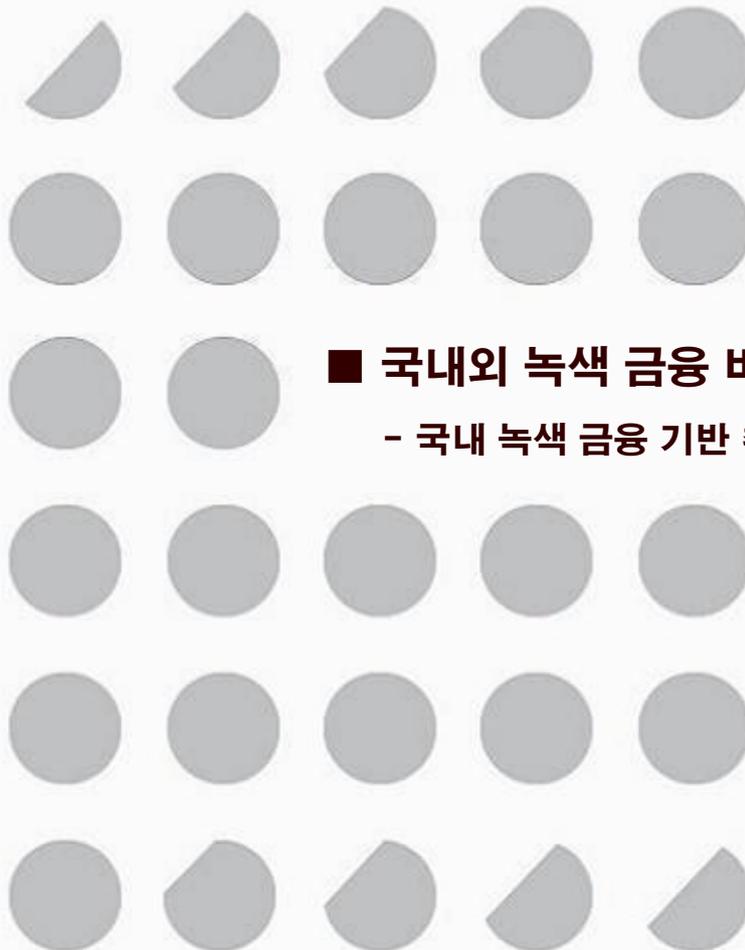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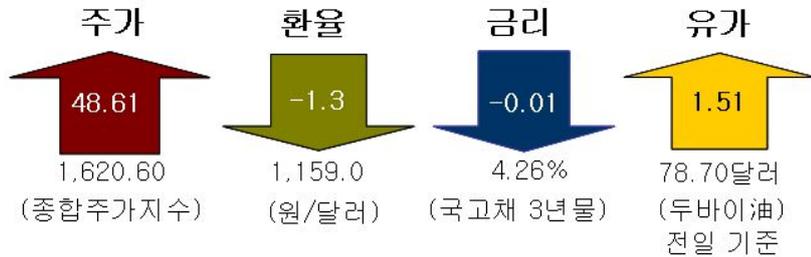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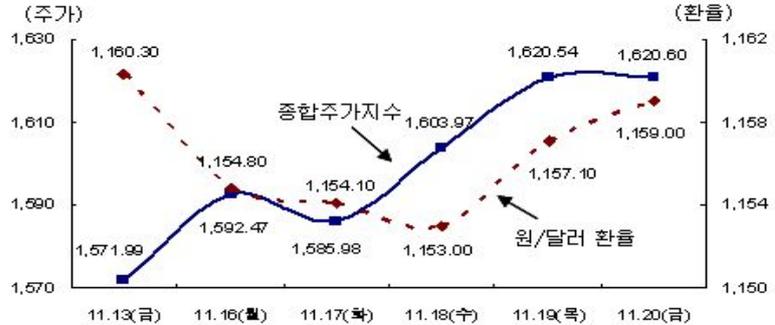


■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

- 국내 녹색 금융 기반 취약하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3~11.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

- 국내 녹색 금융 기반 취약하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 - 국내 녹색 금융 기반 취약하다

(녹색 금융 개념)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비즈니스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한다.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녹색 금융의 6대 문제점) 해외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녹색 금융의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내 녹색 관련 금융 시장은 국내 펀드 시장 활성화에 비해 미미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펀드 자산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09년 5월말 2.9조 원으로, 2007년말 세계 8,980조 원에 비하면 0.03%에 불과하다. **둘째, 기업 금융 상품이 미발달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셋째, 녹색 소매금융 상품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유럽, 북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 및 상가, 차량, 선박 등을 담보로 하여 녹색 기술을 활용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금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만 머물러 있고 담보 대상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 발달이 미흡하다.** 해외에는 녹색금융상품 중 탄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자산 운용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화한 보험 부문의 탄소 관련 상품들이 다양하다. **다섯째,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환경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이 취약하다.** 미국 씨티은행은 환경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와 SMBC 은행은 각각 환경용자실, 금융솔루션실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새로운 리스크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환경관련 T/F 팀으로 존재하거나 전담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 지표가 되는 인덱스가 미흡하다.** 해외 금융기관은 대규모 녹색 관련 기술에 정부의 원조를 받아 자금을 공급하거나 벤처 및 사모 펀드를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녹색 관련 인덱스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가 대표적인 지수이며 클린에너지 지수, 글로벌 기후변화 지수 등이 있다.

(과제) **녹색 금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녹색 기술을 선별하도록 녹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지수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녹색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된다. 셋째, 국내 금융기관들의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녹색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거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내 녹색 산업과 현재 기업의 상태 및 향후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 국내외 녹색 금융 비교와 시사점 >

녹색 금융 개념

-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비즈니스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
-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두 가지로 정의
 -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

국내 녹색 금융의 6대 문제점

녹색 관련 금융 발달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녹색 관련 금융시장의 규모는 펀드 시장 발달에 비해 미미 · 국내 펀드 자산 규모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 그러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09년 5월말 2.9조 원으로 2007년말 세계 8.980조 원에 비하면 0.03%에 불과
기업 금융상품 미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금 제공 ·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주로 실시
녹색 소매상품 대상범위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북미 등 녹색 금융 선진국에서는 주택, 상가, 차량, 선박 등 다양한 대상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짐 · 국내는 금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 있고 담보 대상이 다양하지 않음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 발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는 녹색 금융상품 중 탄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자산 운용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화한 보험 부문의 탄소 관련 상품들이 발달
환경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씨티은행의 환경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일본 미쯔비시 도쿄UFJ와 SMBC 은행은 각각 환경융자실, 금융솔루션의 전담조직 설치
녹색 금융의 개발 지표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투자지수, 클린에너지지수, 글로벌 기후변화지수 등 녹색 관련 인덱스가 발달

대응 과제

- 첫째, 녹색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 지수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
- 둘째, 녹색 기업의 자립 때까지의 정부 지원 보조
- 셋째, 국내 금융기관의 녹색 금융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 넷째, 탄소거래소 추진 등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다섯째, 금융기관 내 녹색 금융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1. 녹색 금융 개요

○ 녹색 금융 개념

-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비즈니스로 환경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
 - 녹색 금융은 담보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된 이후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투자 및 용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발전
-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이니셔티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1)
 - 전반적 경제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 및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
- 녹색 금융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상품과 친환경활동을 유도하는 금융 상품, 탄소시장 비즈니스 상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녹색금융상품 분류 >

구분	내용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 중개기능 과정에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 기업금융, PF, 펀드, 벤처투자 등을 통한 녹색기업 금융 지원
친환경활동을 유도하는 금융	- 금융소비자의 친환경활동을 유도하는 금융 - 기업의 환경경영 정도를 대출심사에 반영, 에너지효율 시설 투자시 우대 - 개인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연동되는 금융상품 개발 (그린카, 그린모기지, 녹색예금, 그린카드 등)
탄소시장 비즈니스	-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 중개업무, 탄소관련 자문·주선·투자, 신용보증업무, 수탁업무, 컨설팅, 배출권 직접매입 등

자료 : 강경훈 외(2009), 『미래를 위한 녹색금융』, 한국금융연수원, p7 표를 재인용,

1) 강경훈 외(2009), 『미래를 위한 녹색금융』, 한국금융연수원.

○ 녹색 금융의 필요성

- 녹색성장 지원과 환경 훼손 관리를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
 -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녹색 펀드 또는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녹색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남
 - 환경 훼손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투자 대상의 환경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하게 됨

- 정부, 금융회사, 기업, 고객 등의 주체별로 녹색금융의 추구 방향이 다름
 - 정부 :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저탄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투자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
 - 금융회사 : 사회책임투자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
 - 기업 :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요구
 - 고객 :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참여할 뿐 아니라 리스크가 높지만 고수익의 기회 확보

○ 녹색 금융을 둘러싼 관련 원칙

- 녹색 금융을 둘러싼 원칙 합의가 2003년 이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책임투자 원칙 : 2006년에는 자산운용에 있어 환경·사회·거버넌스 등을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 ‘책임투자원칙“을 미국 및 유럽의 공적연금기금을 포함한 300개 이상의 기관투자가가 채택

- 적도 원칙 : 민간금융기관의 자율 원칙으로 총비용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서는 환경가이드라인 책정을 요구. 2003년에 개시되어, 2009년 7월 현재 세계 67개의 금융기관이 채택

- 탄소 원칙 : 2008년 2월에는 미국 대형은행이 전력사업자들에 대한 투자 및 e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탄소 원칙을 발표

< 참고 > 녹색 금융 관련 국제 협약

○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이 제정됨

- GRI가이드라인 및 ISO26000 등의 지속가능 경영 글로벌 표준과 UNEP/FI, UN PRI,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및 적도원칙 등의 자발적 국제협약들이 존재

-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 보고서 체계를 개발하여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원칙과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을 발간할 예정인데, 구속력 없는 자발적 준수조항이지만 세계 각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지침서로 국제적 입찰, 주식상장 등을 위한 조건으로 활용될 것임
- *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수탁자는 책임투자를 위해 환경,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토록 권고

<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국제협약 참여 현황 >

국제협약	참여기관 수	주요 참여기관
GRI 작성	960여개 기관	ABN AMRO, HSBC, Citigroup, Barclays 등
UNEP/FI	176개 금융기관	BOA, Credit Suisse Group, JPMorgan Chase&Co.등
UN PRI	524개 이상의 기관	CalPERS, ABP, Swiss Re 등
UN Global Compact	6,500여 기관	Deutsche Bank, ING Group, Mitsubishi UFJ등
CDP	475개 금융기관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자료 : 노희진, 「녹색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Bulls Review, p.42 재인용.

주 : 1) 2008년말 기준임. 단, UN PRI는 2009년 4월말 기준.

2)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

2. 국내 녹색 금융의 6대 문제점

○ 첫째, 국내 녹색 금융 규모 미미

- 한국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한국의 펀드 자산 규모가 세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것에 비해 미미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현재 세계 펀드 자산 규모는 20.3조 달러에 달하나 한국은 2,5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1.2%를 차지
 - 그러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한 전세계(한국 제외)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07년말 약 8,980조 원(4조 9,630억 유로)에 달하고 한국은 2009년 5월말 기준 2.9조 원으로 전세계 0.03%에 불과

<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 >

(단위 : 10억유로/조원, 2007년말)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합계
유로	2,665.4 (53%)	1,917.3 (39%)	333.6 (6.7%)	41.4 (0.8%)	5.5 (0.1%)	4,963.2
원화	4,823	3,469	604	75	10	8,980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 발표」, 2009.9.9.

- 한편, 2009년 4월말 현재 펀드를 제외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취급 규모는 42개 상품, 4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0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4조 3,974억 원으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사는 38.6억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
 - 녹색펀드의 경우,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71개 펀드에 1조 6,000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권역별 녹색금융상품 취급 규모(녹색펀드 제외) >

(단위 : 억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증권사	계
상품건수	35	2	1	1	3	42
취급액	43,974	6.7	26	5	38.6	44,050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 : 2009년 4월말 현황임.

○ 둘째, 기업금융 상품의 미발달

- 해외에서는 기업금융 상품이 발달한 반면, 국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상품 위주로 발달
-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 및 기업에 대한 자원 조달을 추진
 - 녹색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및 투자부문 녹색금융상품도 강화

< 해외 녹색 기업금융상품 현황 >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e)	Rabo bank, Barclays, BNP Paribas 등	글로벌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 -BNP Paribas(프랑스), WestLB (바이오연료와 프랑스)등과 같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에 특화
부분신용보증 (Partial Credit Guarantees)	IFC	글로벌	IFC는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발행한 채권을 제공
자산유동화 (Securitization)	IFC	글로벌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증권화 거래 -IFC는 위험성의 중간 단계에서 보증인이나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
채권(Bond)	다수 은행들	글로벌	대규모 환경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채권 발행 -Forest Bond는 파나마의 대규모 삼림화를 지원 -Cat Bond는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대비한 보조 자본
사모펀드 (Private Equity)	Bank of America	북미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사모펀드 - 6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로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와 산림의 유지·경영을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100%를 할인된 금리로 대출
탄소상품시장 (Carbon Commodity Products)	Barclays, HSBC, Fortis, ABN AMRO 등	유럽	탄소시장과 관련된 금융상품 - 은행들은 CDM과 JI 프로젝트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주식, 대출 등을 제공 - 은행들은 탄소배출권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하며, 배출 수당과 탄소배출권을 근거로 대출 상품을 개발

자료 : UNEP FI(2007),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주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본문 뒤 부록에 정리.

- 국내에서는 기업금융이 주로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기업 금융의 경우, 녹색기업의 기술 개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은행이 대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임
 - 산업은행은 녹색산업에 대한 대출, PF, 사모투자펀드, 벤처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 금융 추진
 - 수출입은행은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유도
 - 이 밖에도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있음

< 국내 녹색금융 현황(기업금융) >

금융기관	내용
산업은행	-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모투자펀드,
수출입은행	- 녹색성장 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탄소펀드 설립 본격 추진
기업은행	- 신보 및 기보 특별 출연하여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	- 그린에너지 산업과 저탄소/고효율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확대
기술신용보증기금	- 은행권과 공동으로 녹색성장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자료 : 대한상의, 「녹색 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2009.10. p11 재구성.

○ 셋째, 녹색 소매금융 상품의 대상 범위가 한정

- 해외의 경우, 주택, 자동차, 선박 등 지원하는 대상 범위가 다양한 반면, 국내의 경우 금리우대 상품이 대부분임
- 유럽, 북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택 및 상가,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중 소매금융 상품이 다양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구입 및 장비 설치에 낮은 우대금리 제공, 친환경 단체 및 기업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특정 녹색상품예금을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상품이 출시

< 해외의 녹색 소매금융 상품 현황 >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장기주택금융 (Home Mortgage)	Dutsh Banks CFS CitiGroup 등	유럽, 호주 미국 등	-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 구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설치 및 친환경 에너지 등에 투자하려는 고객을 대상
차량담보대출 (Auto Loan)	Vancity mecu	캐나다 호주	- 연비가 좋고,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법
선박담보대출 (Fleet Loan)	BOA	미국	- 국제화물섹터와 연계하여 트럭수송업체가 연료 효율이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 배출통제 장치를 갖춘 저 연비 설비의 구매 유도로 연비 15% 향상

자료 : UNEP FI(2007),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주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본문 뒤 부록에 정리.

- 국내의 경우, 예적금, 카드, 보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기초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또한 고객들에게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금리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가 두드러짐

< 국내의 녹색 소매금융 상품 현황 >

구분	내용
예금과 적금	KB 국민은행 사업자우대적금 KB 국민은행 e-공동구매정기예금 기업은행 녹색성장예금 기업은행 환경사랑통장 신한은행 희망에너지적금

자료 : 박영석(2009),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2009 기은연구 여름호.

○ 넷째,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 취약

- 해외에는 탄소시장 발달로 인해 탄소관련 상품이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 자산 운용 상품의 경우,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이 미흡
- 해외의 경우, 녹색금융상품 중 탄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자산운용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화한 보험 부문의 녹색금융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음
 - 그린관련 펀드 투자시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거나 탄소배출 절감 프로젝트 산업에 투자하여 관련 산업을 장려하는 펀드 상품이 존재
 - 또한 친환경 특징을 강화한 보험 상품과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보험 상품 등이 발달
- 국내의 경우, 탄소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규모는 2007년 기준 64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시장 또한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해외의 녹색금융상품 현황(자산관리) >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탄소펀드 (Green Fund)	UBS	유럽	- 투자자의 자본을 받아 기존의 탄소배출 감소 프로젝트로부터 CER 또는 ERU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친환경적 프로그램에 투자 - UBS (Lux) Equity Fund: 청정 에너지 부문에 투자
국고펀드 (Fiscal Fund)	Rabobank ING 등	유럽	- 투자자는 정부주도의 그린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 은행은 낮은 이율로 조달한 자금을 환경프로젝트등 저리로 대출
자연재해 채권펀드 (Cat bond)	Credit Suisse	유럽	- 기후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 예방 - Leu Prima Cat Bond Fund는 보험적용이 어려운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기후로 인한 재해를 대상

자료 : UNEP FI(2007),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주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본문 뒤 부록에 정리.

○ 다섯째, 국내 금융기관의 환경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취약

- 해외 금융기관은 환경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탄소시장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새로운 리스크 환경과 사업기회에 대응
- 미국 씨티은행은 환경 리스크관리 위원회,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환경융자실, 일본 SMBC은행은 금융솔루션실의 전담조직 설치
- 국내의 경우, 농협, 외환은행 등과 같이 환경관련 T/F 팀으로 존재하거나 환경 리스크 전담 조직이라 하더라도 해외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음

< 해외 금융기관 전담조직 현황 >

금융기관	전담조직	내용
씨티은행(미국)	환경리스크 관리위원회	상품개발에서 계약 완료까지 상품 전주기에 따른 환경리스크를 측정, 모니터링
미쓰비시도쿄 UFJ(일본)	환경융자실	2005년 환경융자실을 신설하여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환경펀드'와 재활용 사업이나 폐기물처리 사업 등 환경보존 사업에 대출하는 '환경파이낸스'를 운영
SMBC(일본)	금융솔루션실	2007년부터 금융솔루션실이라는 전담조직을 통하여 CDM사업과 관련한 파이낸싱 및 증개 비즈니스 실행

○ 여섯째, 녹색 금융 상품의 지표가 되는 인덱스 부재

- 해외 금융기관은 녹색 인덱스를 대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녹색 인덱스를 기초로 한 상품을 개발
- 특히 대규모 녹색 관련 기술에 정부의 원조를 받아 자금을 공급하거나 벤처 및 사모 펀드를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덱스들을 제시

-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가 대표적인 지수로 이를 기초로 한 전세계 사회 책임투자 규모는 4조 9,630억 유로(약 8,980조 원)
- SRI지수 이외에도 S&P가 2007년 8월 클린에너지 지수를 , HSBC는 글로벌 기후변화 지수를 산출하여 환경 상품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
- 국내에서는 녹색 관련 인덱스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한국 거래소는 2009년 9월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를 발표하였고 2010년 에도 녹색관련 주가지수를 추가 개발할 예정임

< 해외 주요 SRI지수 현황 >

국가	지수	내용
미국	Domini400 Social Index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기준으로 평가
미국	DJSI (DowJones-Sustainability Index)	경제·환경·사회 기준으로 기업의 장기 가치 평가
유럽	FTSE4GOOD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 평가
독일	DAX global sarashin-sustainability	경제·환경·사회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남아공	JSE SRI Index	요하네스버그거래소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 평가
인도	S&P ESG India	NSE거래소 상장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평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 발표」, 2009.9.9.

3. 과제

○ 녹색 기술 선별 인프라 구축, 녹색 기업 자립까지의 정부 지원, 녹색 금융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녹색 금융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녹색 금융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

- 첫째, 녹색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녹색 기술을 선별하도록 녹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지수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

- 둘째, 녹색기술 기업이 자립할 때까지의 정부 지원

· 녹색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요구

- 셋째, 국내 금융기관의 녹색 금융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 국내 금융기관이 녹색 금융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는 녹색 금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녹색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넷째,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추진 등 탄소 배출권 거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금융기관 내 녹색 금융 전담 조직 설치

· 녹색 금융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시 녹색 산업과 현재 기업의 상태 및 향후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
· 녹색 금융 실무 과정 및 금융 전문가 육성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녹색금융이 녹색 성장과 친환경 증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임

현석원 연구위원(3669-4024, kyotohyun@hri.co.kr)

조호정 연구원(3669-4047, chjss@hri.co.kr)

< 부록 1 > 해외의 녹색금융상품 현황(UNEP FI 자료 참조)

1. 기업금융 상품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e)	Rabo bank, Barclays, BNP Paribas 등	글로벌	은행내에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특화된 서비스 부서가 있음 -BNP Paribas(풍력), WestLB (바이오연료와 풍력)등과 같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에 특화 -Dexia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담은 포트폴리오 파이낸싱을 지원 -Bank of Ireland는 폐기물처리를 후원하는기업 대출 지원 프로젝트
부분신용보증 (Partial Credit Guarantees)	IFC	글로벌	IFC는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발행한 채권을 제공
자산유동화 (Securitization)	IFC	글로벌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증권화 거래 -IFC는 위험성의 중간 단계에서 보증인이나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 -Eco-Securitization은 “자연 인프라” 파이낸스 -Green Mortgage Backed Security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기준을 따르는 건물의 모기지를 하나로 묶음
채권(Bond)	다수 은행들	글로벌	대규모 환경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채권 발행 -Forest Bond는 파나마의 대규모 삼림화를 지원 -Cat Bond는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대비한 보조 자본
벤처캐피탈 (Technology Leasing)	Rabo bank 등	유럽	친환경기술에 특혜 이율 제공 - 2005년에만 Rabobank는 그린 리스를 통해 1억300만 유로를 조달
IPO 지원	ABN AMRO, Citigroup CIBC	유럽	Citigroup는 Brasil Ecodiesel(최대 남미 바이오 디젤회사)의 언더라이터로서 1억7700만 달러 규모의 IPO를 인수하여 브라질과 국제시장에 매각
사모펀드 (Private Equity)	Bank of America	북미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사모펀드 - 6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로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와 산림의 유지·경영을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 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100%를 할인된 금리로 대출 -목재 판매로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에 재투자
환경투자지수 (Eco-Indices)	ABN AMRO	유럽	지구온난화 및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의 변동지수 - ABN AMRO의 에코시장 지수, JPMorgan의 기후친화적 기업채권지수 외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탄소상품시장 (Carbon Commodity Products)	Barclays, HSBC, Fortis, ABN AMRO 등	유럽	탄소시장과 관련된 금융상품 - 은행들은 CDM과 JI 프로젝트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주식, 대출 등을 제공 - 은행들은 탄소배출권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하며, 배출 수당과 탄소배출권을 근거로 대출 상품을 개발

2. 소매금융 상품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장기주택금융 (Home Mortgage)	Dutsh Banks CFS CitiGroup 등	유럽, 호주 미국 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 구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설치 및 친환경 에너지 등에 투자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Dutch Bank는 정부주도의 ‘그린 모기지’ 상품 출시 -호주 Bendigo Bank는 Generation Green Home Loan:변동금리보다 0.5% 낮은 금리와 무료 서비스 제공 -My Community Mortgage, Smart Commute Initiative Mortgage 상품은 에너지 효율성 높은 주택 구입 장려
상가담보대출 (Commercial Building Loan)	NRB, Wells Fargo 등	북미	보통 건물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그린” 상가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Green Loan은 콘도건축에 사용된 장치와 자재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하여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하는 상가담보대출 -미국의 Wells Fargo는 그린 ‘상가’ 건축 프로젝트 참여
주택담보대출 (Home Equity Loan)	CitiGroup NRB	북미	거주자가 자신의 주택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장려 - NRB의 One-Step Solar Financing: 가정에 태양열 설치시 보조금 정책 - Citigroup은 가정용 태양력 시스템 구축시 대출 - BOA의 Environmental Home Equity Program(환경 친화 주택 담보 프로그램) -미국에서 출시된 Visa Access Credit 신용카드고객에 한해 환경 관련 NGO에 기부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차량담보대출 (Auto Loan)	Vancity mecu	캐나다 호주	연비가 좋고,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법 - Clean Air Auto Loan, goGreen Auto Loan(우수한 친환경 자동차 대상으로한 대출): 일반 자동차 대출보다 3-4% 낮음.
선박담보대출 (Fleet Loan)	BOA	미국	국제화물섹터와 연계하여 트럭수송업체가 연료 효율이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press loan: 트럭회사들의 효율적 연비 기술 발전 지원 정책
신용카드 Credit Card	Rabo bank	유럽	친환경 활동과 연계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도입 - 기후 신용카드: 구입 상품의 에너지 집약도에 따른 은행은 환경보존단체 프로젝트에 일정 비용 지원 - 네덜란드에서 출시된 GreenCard Visa는 배출상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 무탄소 카드 - 적립된 포인트를 환경NGO에 기부, 무탄소 녹색카드 도입 외
예금 (Deposit)	Shore bank	미국	녹색예금 계좌를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 - LandCare Term Deposit: 농업지원 정책 - EcoDeposit 조성을 통해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 - 일부의 수수료는 The Climate Trust에 기부
판매 (Sale)	Barclays, HSBC	유럽	Barclays는 이산화 탄소 상쇄 기관인 Climate care와 제휴를 맺고 개도국의 재활용 에너지 계획, 산림복구, 에너지 효율등에 투자하는 상품 개발.

3. 자산관리 및 보험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자산 운용	국고펀드 (Fiscal Fund)	Rabobank ING 등	유럽	정부주도의 그린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 - 투자자는 정부주도의 Dutch Green Fund(네델란드) 은행의 지분을 사거나 투자를 통해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은행은 낮은 이자율로 조달한 자금을 환경프로젝트에 대출로 제공 -Rabobank가 개설한 그린펀드에는 2005년 기준 63000명이 투자했고 20억 달러가치외 2건 대출을 제공함
	탄소펀드 (Green Fund)	UBS	유럽	투자자의 자본을 받아 기존의 탄소배 출 감소 프로젝트로부터 CER 또는 ERU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친환경적 프로그램에 투자 - UBS (Lux) Equity Fund-Eco Performance : 세계최대 규모의 녹색 펀드로 청정 에너지 부문에 투자 -- UBS (Lux) Equity Fund- Future Energy: 청정 에너지 사업에 투자
	자연재해 채권펀드 (Cat bond)	Credit Suisse	유럽	기후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 예방 - Leu Prima Cat Bond Fund는 보험적용 이 어려운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기후로 인한 재해를 대상
보 험	자동차보험	Aviva, GMAC Insurance	영국,독일 캐나다	실제주행거리와 보험료를 연계하여 차량 사용량을 줄이도록 장려 - 유럽의 Pay As You DriveTM 보험상품 - 특히,영국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 효율이 높은 차량 10% 할인 혜택
	주택보험	ETA	영국	에너지/물 효율이 좋은 새주택과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에 보험 적용 -탄소중립주택보험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주택보험을 설계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둠
	사업보험	Rabobank	유럽	환경손해 보험은 홍수 등 기후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 기업의 재해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탄소보험	Swiss Re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보험상품
	탄소보험	AIG and Marsh	유럽	배출권 거래에 개인 기업의 참여 유도 를 목적으로 탄소배출권 보증을 위한 보험상품

< 부록 2 > 국내 녹색금융상품 현황(각 은행 출시상품 참조)

	금융기관	상품 내용
예 · 적 금	국민은행	-한시판매한 공동구매 정기에금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이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만기이자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
	기업은행	-가입금액의 0.1%p를 은행부담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 단체에 기부
	신한은행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 제공하는 적금 출시
	우리은행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우대이율제공 및 보험 가입
	수협	-고객의 환경기여 및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
	농협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출시
대 출 상 품	국민은행	-‘KB그린그로스론’은 친환경보존 및 녹색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지원
	하나은행	-‘-0.3℃대출’을 통해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보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중교통 이용자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
	외환은행	-‘마이솔라파트너론’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시설자금을 지원 -‘녹색기업 파트너론’은 녹색성장, 우수기술 등의 핵심분야 중소기업을 지원
	기업은행	-‘녹색성장 기업대출’ 청정에너지산업,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산업 및 환경마크인증기업과 환경친화기업에 1조원을 지원할 예정
	신한은행	-‘신한솔라파워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시설자금을 지원
	농협	-‘녹색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탄소마일리지 참여시 0.2%p,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0.1%p대출금리 우대 혜택
	우리은행	-‘우리LED론’으로 LED기업을 특별 지원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3/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3.5	-2.7
EU	2.7	0.7	0.7	-0.3	-0.4	-1.8	-2.5	-0.2	0.4	-4.2
일본	2.3	-0.7	4.0	-2.9	-6.5	-11.5	-12.2	2.7	4.8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6	-1.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 13일	11월 2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41	3.34	-0.07%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89.55	88.95	-0.6¥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932	1.4913	-0.0019\$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270	10,332	62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9,770	9,549	-22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27	4.25	-0.02%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60.3	1,159.0	-1.3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572.0	1,620.6	48.6p

주 : 11월 20일 해외 지표는 전일(11월 1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 13일	11월 20일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76.48	77.62	1.14\$
	Dubai	36.45	46.80	71.85	65.33	77.19	78.70	1.51\$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69.12	274.27	5.1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